

탄소중립, 녹색도시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책팀
2024.5.7.

경기도 하천과 하천정책팀
2024.5.16.

세종시 건설교통국 건축과
2024.5.17.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출처: 충청남도. (2024). 외부 전력 '0' 탄소중립
공공건물 탄생. 5월 7일 보도자료.

충청남도, 탄소중립 공공건축물 조성

충청남도과 당진시는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부 전력 사용이 전혀 없는 탄소중립 공공건축물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력을 생산해 합덕수리민속박물관에 공급할 수 있는 40킬로와트급 고정형·건물일체형 태양광 설비가 박물관 옥상에 설치되었다. 또한 건물 외부 단열재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창호를 고성능으로 교체하였으며, 냉난방공조와 공기순환기 등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였다. 지난 4월 박물관의 전력 소비량은 3,264킬로와트인데, 태양광으로 4,290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여 100%를 웃도는 에너지 자립률을 기록하였으며, 전력 사용량 또한 전년 동기의 약 60%였다고 도는 설명하였다.

경기도, 폐천부지 활용한 에너지자립공원 조성

경기도가 하천길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의 하나로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를 활용한 도민 체감형 'RE100 공원'을 만든다. RE100 공원은 하천길 주변 농지와 적치물 방치 폐천부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 조성하게 된다. 도시공원과 캠핑장 등도 조성해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원 내 사용 전력을 충당한 뒤 남은 전력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이나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1개소당 10억 원의 예산으로 총 4개소에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세종시는 건축 부문 온실가스 16% 감축을 목표로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새 기준은 신축·중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m²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총 5개 부문 14개 항목에 적용된다. 해당 기준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4개 군(群)으로 분류하고 차등 적용하는데, 주거 30세대 미만 중 연면적 500m² 이상과 비주거 연면적 500m² 이상~3,000m² 미만인 '라'군은 저녹스보일러·기계환기장치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녹색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는 5~10%, 재산세는 3~10% 범위에서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